

【논문】

재만 조선인 작가 심연수의 수학여행 관련 문학 사료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

조윤정**

차례

1. 일제 말기 수학여행의 정치성과 심연수의 글쓰기
2. 재만 조선인 학생의 기행문과 시조에 나타난 여정과 내면
3. 『만선일보』의 검열과 개작된 기행문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재만 조선인 작가 심연수가 1940년 5월 5일~22일 수학여행을 다녀와 쓴 기행문과 시조 등의 문학 사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심연수는 수학여행 전후의 일기,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를 포함한 육필 기행문 3편, 이 육필 원고를 저본으로 삼은 『만선일보』 연재 기행문 「權域을 찾아서」 1편, 육필 시조 67편을 모은 『無跡步』를 남긴다. 이 작품들에는 당시 수학여행을 둘러싼 사정, 재만 조선인 학생이 수학여행지로 들렀던 장소, 그곳에서 느낀 감상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그의 작품은 조선→만주가 아니라, 그 역방향인 만주→조선으로의 여행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고향을 떠난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 다시 조선 땅을 밟은 때와 여행을 끝내고 만주로 돌아간 순간의 심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심연수가 남긴 작품들의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고, 만주국의 교육적 이상과 학생의 내면이 담긴 글쓰기 사이에서 발생한 간극에 주목했다. 또한, 육필 원고와

* 이 글은 2020년 7월 21일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심연수 사료와 문학 세미나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KAIST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신문 연재본을 비교 대조하여 일제 말기 검열 환경이 심연수의 글쓰기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심연수는 이어 쓰기, 다시 쓰기, 장르 바꾸기뿐 아니라, 쓰지 않기로도 여행의 감정을 표현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글쓰기 공간을 이분화하여, 『만선일보』를 문인 퇴기의 수단으로 삼는다. 일제 말기 오죽협화나 왕도낙토의 정신은 재만 조선인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되었다. 그러나 그의 글쓰기 방식은 그 신념을 내면화하는 일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만다. 작가 심연수의 수학여행 관련 사료는 일제 말기 제국의 교육적 기획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정치적 이상이 재만 조선인 학생에게 관철되지 못했던 정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주제어: 심연수, 수학여행, 기행문, 시조, 상호텍스트성, 만선일보, 검열

1. 일제 말기 수학여행의 정치성과 심연수의 글쓰기

작가 심연수는 1918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8살이던 1925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하였으며, 중국 용정에서 학창시절을 보낸다. 1940년, 용정 국민고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1940년 5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수학여행을 떠난다. 그는 수학여행 전후의 일기, 여행 후에 작성한 기행문, 『無跡步』라는 시조집으로 당시 수학여행을 둘러싼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남겨 두었다. 특히 그가 일기장이나 수필 원고철, 낱장 원고 등에 남긴 기록은 일제 말기 미디어 검열을 거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점은 그의 육필 기행문과 『만선일보』에 수록된 기행문을 비교해 볼 때, 명징하게 드러난다.

그간 작가 심연수가 남긴 수학여행 관련 사료에 대해서는 독립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선행 연구자들이 그의 기행 시조에 주목하기는 했으나 수학여행이라는 배경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정치적 성향이나 주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특정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다. ‘조국애와 고향의식’¹⁾을 표현한 시조, 혹은 그와 대조적으로 ‘만주국의 지배 사상에

1 김해웅, 2006, 『심연수 시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34면; 박복금, 2010, 『심연수 시조의 고향의식 연구』, 『한중인문학연구』29, 한중인문학회, 168~169면.

동화²된 시조라는 이분화된 해석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앞선 두 경향을 모두 감안한 연구더라도 심연수의 시조는 이은상과의 연장선에서 주목된다.³ 그 가운데 일제 말기 수학여행이라는 콘텍스트를 의식하고 심연수의 시조를 분석한 사례로는 황규수의 논의를 들 수 있다.⁴ 그는 「노인공동묘지」, 「신경」 등의 작품까지 포함하여 여행 시조에 나타난 '민족적 동질성'과 '이국살이'의 정서에 주목한다. 다만, 시조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기, 기행문, 시조 등 심연수의 창작 활동 사이의 상관성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이 이어지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그간 연구자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 사료 전집 1: 심연수 문학편』의 불완전성을 언급할 수 있다.⁵ 현재 이 사료집에 수록된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는 심연수의 육필 원고 두 편을 이어 붙이는 가운데 그 내용이 심하게 훼손되고,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심연수가 여러 원고를 거쳐 신문 연재본에 이르렀다는 것을 추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편집자가 심연수의 문체를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고유명사 등을 오독한 결과 수학여행의 여정을 정확하게 고증하기 위한 자료로 기능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그간 심연수 연구가 특정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반일이나 친일 의식을 문제 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심연수의 문학 사료를 변형하고 왜곡하는 문제로 나아가간 원인이기도

2 이성천, 2011, 「재만 시인 심연수 시 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70, 어문연구학회, 374면.

3 우은진, 2015, 「일제 말기 만주 지역 시조 연구」, 『한국문학논총』71, 한국문학회, 334면.

4 황규수, 2007, 「심연수 시조 창작과 그 특질」, 『한국문예비평연구』2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58~165면.

5 심연수, 2004, 「일만리 려정을 답파하고서」,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 사료 전집 1: 심연수 문학편』,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493~499면. 이 문학 사료 전집의 편집자는 두 편의 육필 원고를 연결하는 가운데, 긴 문장을 짧게 나눠 쓰거나 수식어구를 축약하고 심연수가 느낌표나 물음표로 표현했던 심연수의 감상을 많은 부분 지워버린다. 또한, 두 번째 육필 원고에서는 심연수가 썼던 금강산의 '장안사' 이전의 여행 기록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서울'과 관련해서는 없던 내용을 편집자가 자의적으로 보충하기도 한다.

하다.

마지막으로 수학여행 관련 연구가 조선에서 만주, 혹은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방향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재만 조선인의 수학여행 문화는 엽서나 졸업앨범의 사진 등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연수의 조선어 사료가 발굴됨에 따라 일제 말기 재만 조선인의 수학여행을 둘러싼 사정, 여행에 관해 학생들이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고증할 수 있게 되었다. 심연수의 문학 사료는 수학여행이라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둔 작가의 내면과 그의 문학 작품들 사이의 관계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더불어 조선에서 조선 외부로 향했던 수학여행의 방향을 역으로 살필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심연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관련 정보나 자신의 심경을 일기에 간단히 기록하여 당시 수학여행을 둘러싼 절차나 학생들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그의 일기 중에 수학여행이 가장 먼저 등장한 때는, 1940년 2월 2일이다. 1월 27일에 개학한 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修學旅行이니 앨범이니 하며 教室이 뒤숭숭”⁶한 상태임을 써 두었다. 당시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 졸업여행을 대신하는 의례적 성격의 행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이후 4월 15일 일기에 보면, ‘수학여행 인가’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⁷ 당시 수학여행이 학무국의 인가를 거쳐 시행되었기에 용정국민고등학교 역시 그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특히 일제 말기에는 ‘사치금지령’ 때문에 철도국에서 여행객의 철도 이용에 제약을 두었다. 당시 수학여행을 떠나려는 단체 여행객은 미리 학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⁸

심연수는 4월 29일에 ‘수학여행비’를 낸다.⁹ 그리고 여행을 이를 앞둔 5

6 심연수,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8, 『심연수 육필 일기집』, 강릉문화원, 41면.

7 위의 책, 116면.

8 「不急不用의 乘客制限 修學旅行은 許可制」, 『만선일보』, 1940. 7. 31.

9 심연수,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8, 『심연수 육필 일기집』, 강릉문화원, 130면.

월 3일에는 “마음이 떠돌고 우중중하여 先生의 教授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¹⁰ 고 쓴다. 17박의 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여행 경비까지 학교에 내고 학생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심리적 동요를 그대로 담은 문장이다. 보통 일제강점기 수학여행기가 출발 당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연수의 일기는 여행 전의 정황까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일제 말기 전시 체제하에서 허가제로나마 수학여행이 유지되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수학여행이라는 이벤트가 일본의 황국정신과 같은 국가주의 담론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매체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학생들의 여행 욕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다. 또한, 수학여행과 같은 공적인 행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 장소와 기간 등이 학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했기에 학교 광고 효과도 지녔다. 게다가 수학여행이라는 대규모 상품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각 학교 교지나 졸업앨범, 더 나아가 신문 등에 수학여행 관련 기록이 실리는 것은 그와 같은 정황과 관련된다.

1940년 4월 26일 『만선일보』에는 용정국민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알리는 기사가 실려 있다.¹¹ 이 기사를 통해 수학여행단의 수가 백 명이었으며, 그들이 용정을 떠나 금강산-경성-개성-평양-대련-여순-봉천-신경 등지를 관광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당시 만주에서 이 수학여행을 “재만일본인교육의 신동향(新動向)을 지향(指向)하는 것으로서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만선일보는 이 같은 기사를 통해 수학여행을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만든다.

만주국의 교육 이념은 시기적으로 강조점이 달랐다. 만주국 초기에는 왕도주의에 입각한 ‘왕도(王道) 교육’이 강조되었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부터는 ‘황도(皇道) 교육’이 주창되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신도(神道)

10 위의 책, 135면.

11 「龍井國民高等校 修學旅行團」, 『만선일보』, 1940. 4. 26.



[그림 1] 1940년 4월 26일 『만선일보』 기사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황도교육이나 신도교육 방침의 근본은 만주국 국민을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황민(皇民)으로 배양하려는 것이었다.¹² 여기에는 '황도(皇道)'를 강조하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논리가 작동한다. 1940년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일본은 만주국의 조선인 교육에서, 중동

원 체제에 복무할 수 있게 '민족협화의 정신'과 '신체 단련'을 매우 중시했다. 심연수의 여행기를 보면 1km 이상을 밤새워 걸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산행을 비롯한 도보 행군은 당시 학생들에게 강조된 신체 단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조선의 금강산과 경성·평양, 만주국의 수도新京, 청대의 유적을 품은 봉천, 일본의 승전지인 여순 등 용정국민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경로는 민족협화의 이상을 따라간다. 이는 심연수가 다니던 학교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던 조선 내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여정이다. 금강산은 일제강점기 교과서나 여행안내서에서 기이한 '자연미'로 일본의 후지산과 비견되던 곳이었다.¹³ 조선의 고도(古都)를 비롯한 명승지는 '고대 내지와 조선이 깊은 관계가 있던 사실을 일본의 국사에 비추어 설명'¹⁴하기 위한 장소였다. 또한, 여순, 대련, 신경, 하얼빈 등 신도시는 제국의 자본주의

12 윤휘탁, 2016, 「만주국의 교육 이념과 조선인 교육」, 『중국사연구』104, 중국사학회, 185면.
 13 조선총독부 편, 1924, 「富士山과 金剛山」,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조선서적주식회사, 57~63면; 松本武正·加藤松林, 1926, 『金剛山探勝案内』, 龜屋商店, 5면.
 14 「社説: 朝鮮教育に就て」, 『教育時論』958호, 開發社, 1911. 11. 25.

적 개발을 과시할 뿐 아니라 일본의 위령공간으로서 '제국의 쇼윈도'¹⁵로 관념화된 공간이었다. 이처럼 수학여행지는 학생들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이나 만주국을 사유하고, 일본 문화에 굴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곳이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심연수는 제국의 정치 교육적 기획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여행기와 시조에 담았다. 그는 매우 상세하게 일정을 기록했으며, 여행지에서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때, 육필 원고 사이에 '이어 쓰기'나 '겹쳐 쓰기', '장르 바꾸기'의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그는 일부러 '쓰지 않기'를 감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수학여행을 둘러싼 심연수의 글쓰기는 특정 상황을 확대 혹은 은폐함으로써 서술 시간을 지연하거나 뛰어넘는다. 그의 글쓰기 방식은 '여정의 정상성'을 깨뜨린다. 이 논문은 심연수의 육필 원고와 신문에 연재된 수학여행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재만 일본인 교육의 신동향'이라는 정치적 이상과 학생 심연수가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겠다.

2. 재만 조선인 학생의 기행문과 시조에 나타난 여정과 내면



[그림 2] 용정국민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졸업앨범, 1940)¹⁷

15 임성모, 2006,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근대 일본의 만주여행과 제국주의식」, 『일본 역사연구』23, 일본사학회, 107~108면.

16 이 사진은 1940년 용정국민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작가 심연수의

심연수는 용정국민고등학교 졸업반 제1대 소속(30명)으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그는 이 여정을 토대로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를 쓰는데, 이 작품은 동일 제목의 습작을 거친 작품이다. 이 습작에는 제목 옆에 ‘본대로들은 대로늦긴대로’¹⁷라는 어구가 괄호 안에 붙어 있다. 이를 토대로 심연수가 자신의 관찰과 감상을 거친 대로 정리해 두었다가 원고지에 완성본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연수는 수학여행지로 방문했던 곳에서 얻은 시상을 시조로 창작한다. 그는 수학여행 날짜순으로 엮은 67편의 시조를 육필 시조집 『無跡步』로 남긴다. 1940년 7월 24일 일기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시와 관련하여 ‘참다운美文은 참다운 構想의 所産’임을 언급하며, ‘記憶의 주머니를 쥐어짜가며 방울글을 쓰게 되었다’고 적는다.¹⁸ 이 시조들 가운데에서는 「온정리」처럼 그의 여행기 일부분을 거의 그대로 옮긴 형태가 있는가 하면, 「구만물상», 「신계사», 「금강문», 「마의태자릉」처럼 여행기에서 다 쓰지 못했던 감상을 함축적으로 재현하는 작품도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시조는 그가 여행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금강산의 마하연, 서울의 명승지도 방문했던 사실을 드러낸다.

일기의 기록이나 작품의 내용상 선후 관계를 따져 보면, 육필 기행문→시조→신문 연재 기행문의 순으로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여행기와 시조는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 자신의 작품을 이용하고 변형하여 다른 장르나 매체의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그는 여행의 기억을 보충하고 감상을 재구성한다. 다음은 그의 육필 기행문을 토대로 정리한 수학여행 일정이다.

유족 심상만 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필자가 촬영한 것이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유족께 감사드린다.

17 심연수, 2019, 「일만리여정을 답파하고서[습작]」,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심연수 육필 산문집』, 강릉문화원, 245면.

18 심연수,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8, 『심연수 육필 일기집』, 강릉문화원, 189면.

[표 2] 심연수의 육필 기행문을 토대로 정리한 수학여행 일정

| 일시 | 장소 | 이동수단 | 특이사항 및 감상 | 관련 작품명 |
|------------------------|--|---|--|--------------------------------|
| 5월 5일 오후 8시 | 용정-두만강-상삼봉 | 기차 | 학교명 없이 '4-3 심연수'로 저자명이 기재되어 있어 학교에 제출한 원고로 보임. |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 |
| 5월 6일 아침-밤 | 상삼봉-수성-성진-함흥-원산 | 청진행 기차 (후대와 합류)로 수성에 이르러 경성행 기차로 환승. | 국경을 넘는 학생의 기대감, 바다 풍경을 본 감상이 두드러짐. | |
| 5월 7일 아침 | 원산 부두 구경 | | 부두에서 쓸쓸함을 느낌. | |
| 5월 7일 오후 1시 경-저녁 | 원산-외금강역-온정리(구룡각 여관)-육화대-구만물상-육화대-구룡각 | 동해북부선 기차-온정리, 육화대까지 2대의 자동차로 분승. | 여관에서 동해의 상업성과 다른 친절함을 경험. 앞 부분의 원고가 소실된 듯함. 외금강역에서부터 여행 안내자가 있었음을 알려줌. | 제목 없음. 전집상 '무제 기분이 나는'에 해당 |
| 5월 8일 아침~점심 | 신계사-금강문-옥류동-구룡연(점심식사)-마의태자릉-비로봉-은제금제-묘길상 | 도보 | 옥류동 바위 면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더듬어 봄. 구룡연을 구슬 떨어지는 폭포에 비유, 자연미에서 느끼는 신엄, 신비 경험. |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 |
| 5월 8일 저녁 | 장안사-평화여관 | 도보 | 앞부분의 원고가 소실된 듯함. 만물상-육화대-온정리-구룡각 여관-신계사-구룡연-옥류동-비로봉-은제금제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후, 장안사로 이 어짐. 옥류동에 대한 감상이 두드러짐. | 제목 없음. 전집 상 '무제 바위 면에는'에 해당 |
| 5월 9일 아침 | 망군대-면경대 | 도보 | 면경대에 이름을 새기는 대신 바위 꼭대기에 돌 두 개를 올려 놓음. 안내자에게 전설을 듣고, 면경대의 신비를 신께 고해할 만한 장소에 견주어 봄. | 무제 기분이 나는 |

| | | | | |
|------------------------|--------------------------------------|---|---|---------------|
| 5월 9일 오후 | 기차에서 동해-안변 평야-통천의 풍경 관 람-여관 | 고성행 기차 (오후 1시 8분 ~4시 50분) | 범상치 않은 산세와 해풍을 느낌. 여관에 서 금강산 여행을 돌아봄. | 무제 바위 면 에는 |
| 5월 10일 오전 4시~ 오후 | 내금강역-철원-경성 (오후 2시)-신사참배- 종로여관 | 내금강역까지 도보(1km)- 전철 이등차 탑승하여 철 원-경원선 기 차로 환승. | 경성 신사 참배 후 종로여관에 도착한 장 면에서 원고 중단됨(이하 소실). 내금강을 떠날 때 전철 이등차 탑승에 대 해 원거리 여행객에 대한 특별 대우라 생 각함. | |
| 5월 11일 | 서울에서 여러 곳을 견학 | | 서울에서 본 이야기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려 한다고 씀. | 무제 기분이 나는 |
| 5월 12일 | 서울-개성 도착-만월 대-선죽교-평양 | 기차 | 비가 옴. 서울과 한양이라는 지명을 혼용 함. 비내리는 만월대에서 눈물을 흘림 | |
| 5월 13일 | 모란봉 | 도보 | 역사적 고적에서 파란과 살육의 흔적을 봄. | |
| 5월 14일 | 평양-신의주-압록강 (개폐교)-소가둔 | 소가둔에서 대련행 기차 탐. | 개폐교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함. | |
| 5월 15일 | 대련 | | | |
| 5월 16일 | 여순 | 저녁 때 봉천 행 기차 탐. | 일본군이 노군을 이긴 곳이라 씀. | |
| 5월 17일 | 봉천역-북릉 | | 청대의 건축술과 제도에 놀람. | |
| 5월 19일 | 신경역-가로-고층건 물-만선일보사-하얼 빈 거리-송화강 | 도보 | 만선일보사를 조선언론기관으로, 하얼빈 거리를 국제도시의 빛으로, 송화강을 대 만주의 동맥으로 표현함. | |
| 5월 22일 | 용정 | | 수학여행에 대한 아쉬움 기록. | |

심연수는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 이외에 수학여행 여정을 담은 다른 원고를 집필한다. 그것이 전집에 실린 「무제 바위 면에는」과 「무제 기분이 나는」이다.¹⁹ 이 작품들에는 제목이 따로 없다. 앞부분이 소실되었거나, 작가가 이전에 쓴 글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작성한 원고이기 때문이다.

19 현재 육필 원고에는 제목이 없으나, 작품명을 제시할 때는 편의상 전집에 실린 제목을 따른다.

「무제 바위 면에는」²⁰은 금강산에서 그가 보았던, 수천 명의 탐승자들이 이름을 새겨 놓은 바위에서부터 시작된다. 글쓴이는 신만물상을 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으로부터 시작해 앞선 글에서 묘사한 장소를 언급하되, 마의태자릉과 묘길상은 생략한다. 대신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에 비해 장소에서 보고 느낀 바를 훨씬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제목이 없는 이 글은 은제금제 이후 장안사에서부터의 일정이 이어지는 구조로 전개된다. 「무제 기분이 나는」은 앞의 글과 같은 날부터 시작되지만, 외금강 역에서부터 구만물상까지의 심경이 자세히 묘사되고, 중간 경로를 거의 생략한 채 망군대와 면경대를 거쳐 개성으로 나아가는 구성을 취한다. 이 때문에 이 글은 다른 두 편의 기행문에서 감상 없이 지나쳤던 장소를 다시 환기한다. 결국 그가 남긴 여러 편의 기행문은 독립되었다기보다 한 편의 글에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기억과 감상을 상호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무제 바위 면에는」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옥류동에서의 감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옥류동에 대한 감상은 금강산 여행기의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시간의 지연을 이끈다. 여행지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의 오감으로 느껴본 대상에 대한 기억이 여행 후에도 오래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돌층대 쇠사다리 굴을 지나 玉流洞에 이르렀다 金剛山에는 물이 없습니다 하
 난님이 이런 瑞福地에 흔하고 더럽은 물을 주실 리 없어 구슬을 물 대신 주어서
 물 하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구슬이 變해 된 그 맑은 물에 낮과 발을 씻
 고 손으로 웅키여 기쁜 먹고서는 바위 운에 발을 밟고 앉어 구슬이 흐름만 보
 고 있었다 나는 앉은 자리를 無心코 손으로 더듬게 되었음니다 그러고 그저 바
 위와는 다르기에 살펴보니 數千名의 探勝客의 일흠을 磐石 우에 색인 것이였다

20 이 글에서는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와 달리, 구룡연과 옥류동의 여정이 뒤바뀌어 있다. 보통 당시 수학여행 일정이 옥류동→구룡연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심연수가 수학여행 이후에 기행문을 쓰면서 경로를 혼동했음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이 곧에다 일흠을 남겨서 後人에게 알리려는 卑賤한 意味에서 한 것이 아니라 仙境을 그저 무엇 남김없이 돌아가면은 物件은 받고 代價를 아니 치르는 격이 된대서 일부러 증과 망치를 들고 糧食을 지고 觀光客이 빈빈하 곧에다가 증으로 일흠을 색이는데 後사람이 자조 밥는 곧 보는 곧을 擇한 것이었다 그들은 될 수 있는대로 색인 것이 사람의 발에 달어서 글字가 變하여서 없어지는 것을 좋아한 것이라고 보여지더라²¹

심연수는 옥류동에서 물로 얼굴과 발을 씻고 주변 반석에 새겨진 탐승자의 이름을 더듬은 감각,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한다. 금강산의 자연미, 그 속에서 선인이 된 듯한 느낌에 대한 기록은, 그가 경험한 ‘불합리한 생각’에 대한 자각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전의 탐승객이 바위에 이름을 새기며 폼을 뜻할 비천하고 세속적인 의미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바위 위의 이름을 더듬으며 선경(仙境)에 빛진 자가 이름을 새기는 시간, 이름이 지워지는 시간을 가늠한다. 그의 심상은 바위에 새겨진 관광객의 이름조차 금강산의 진풍경이자 오랜 역사로 승화한다. 이후 망군대와 면경대에 이르기까지 그가 체험한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승고와 신비를 내포한다. 승고의 대상은 거대함, 무한함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공포’의 정념을 환기한다.²² 심연수는 금강산에 올라 ‘무서움’과 같은 공포를 체험하고 쾌에 가까운 미학적 기쁨을 얻는다.

또한, 그가 쓴 글의 내용을 보면 당시 학생들이 금강산 이후 여정으로 계획된 경성 방문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만강-원산-금강산-경성-개성-평양-신의주-대련-여순-봉천-신경-하얼빈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 안에서 학생들이 가장 열망했던 곳은 바로 조선의 ‘경성’이었다. 이 점은 간

21 심연수, 「무제 바위 면에는」,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9, 『심연수 옥필 산문집』, 강릉문화원, 256~257면.

22 大河内昌, 2003, 『岩波講座 文學7: つくられた自然』, 岩波書店, 180면(서지제, 2011,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49면 재인용).

도에서 출발한 학생들이 지냈던 수학여행의 심상지리 안에서 조선의 수도가 자신의 생활권으로부터 가장 ‘멀고’, ‘다른’ 곳으로 상상되었음을 일깨운다. 그러나 정작 금강산에서 경성으로 오는 길에 그는 어떤 ‘상실감’을 경험한다.

우리는 잘 있거라 金剛山아 또다시 찾을 때가 있으리라 하며 電車 속에서 山만 내다보며 鐵原까지 와서 京元線을 바꾸워 타고 간다 무엇을 잃은 것도 같고 두고 오는 것도 같다 그러나 잃은 것 없고 둔 것 없는 몸 더욱히나 말 못할 심사를 줄 뿐 벌서 往十里다 서울이 가까웠다 보자 五百年 나리던 도읍터가 어떠한가 좀 있다가 배 돛이 보인다 아 이것이 아마 漢江인갑다 龍山도 지났다 게이쵸 하는 소리에 行李를 걸메고 車 안을 돌아보고 나렸다 와그그하는 사람 소리 잉울루롱하는 電車 自動車 소리야 이것이 서울의 첫 마집인 모양이로구나 神社에 參拜하고 鐘路旅館을 차졌다 웬일인지 뒤통수를 무엇에 맞(이하 소설)²³

왕십리와 용산을 지나 경성에 도착한 심연수는 ‘오백년 나리던 도읍터’에서 ‘게이쵸 게이쵸’하는 일본어 소리, 사람 소리, 전차와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서울의 첫 마집인 모양이로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사 참배 후 종로여관을 찾고 ‘웬일인지 뒤통수를 무엇에 맞’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가 금강산을 떠나며 느낀 상실감과 경성에 들어서서 느낀 정신적 타격은 맞닿아 있다. 압도적인 자연미를 뒤로하고 도시 경성으로 향하며 그가 느낀 상실감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즉 자연에 대한 노스텔지어에 가깝다. 그리고 신사 참배와 종로여관 방문 후에 그가 느낀 충격은 예상과 다른 경성의 모습에서 기인한다. 학생 심연수는 교과서나 신문과 같은 매체로만 접했을 경성과 실제 경성 사이에서 ‘두려운 낯섦’²⁴에 직면한다.

23 심연수, 「무제 바위 면에는」,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9, 『심연수 육필 산문집』, 강릉문화원, 260면.

24 친밀한 것에 내재하는 알지 못하는 존재. 즉 나를 공포로 움찔하게 만드는 타자와 나를 갈라놓는 심연의 체험에서 느끼는 기본에 대해서는 이소마에 준이치의 분석을 참고했다. 이소마에 준이치, 심희찬 역, 2014, 『상실과 노스텔지어』, 문학과 지성사, 76~77면.

금강산과 경성이라는 장소가 일으킨 심경의 낙차는 그의 다른 여행기 「무제 기분이 나는」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경성의 견학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일축해 버린다. 심연수는 이 글에서 자신이 ‘서울서 여러 곳을 견학’ 했지만 ‘이곳에서 본 이야기를 내 혼자만 알고 있으려 한다’고 쓴다. 여기에는 앞선 기행문에서 짧게나마 표현했던 충격보다 더한 침묵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정에서 하루 반나절을 차지한 경성에서의 시간은 화자의 말하지 않는 태도(혹은 말할 수 없음)에 의해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세세히 기록해 온 저자의 갑작스러운 태도는 독자에게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이 의도된 공백은 그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충격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부각한다.

심연수는 여행기에 쓰지 못한 서울에서의 감상을 시조에 담는다. 이 작품들을 통해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에서 그가 한강, 남대문, 북악산, 경복궁, 경회루, 덕수궁을 방문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밤」이라는 시에 보면, 시적 화자는 ‘서울 말씨, 조선 옷, 조선말, 조선 얼굴, 조선 모습’을 ‘눈을 귀를 다 뜨고 듣고 보고 하였쇠다’라고 말한다. 서울에서 느낀 조선이 심연수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漢陽의 南쪽을 안고서 흘렀으니
五百年 그동안에 생긴일 다알리니
慘狀을 보고서는 동정에 울었느냐²⁵

옛날의 南大門엔 빛이있어 빛나더니
오늘엔 古色조차 수집어 서있나니
서울을 찾아와서는 한숨짓고 가는길손²⁶

25 심연수, 「한강」,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8, 『심연수 육필 시고집』, 강릉문화원, 170면.

26 「남대문」, 위의 책, 171면.

國賓이 놀던곳도 이곳이 그였지만
 國賓 없는오날엔 主人도 앉놀겠지
 흠발에 더러워진 石階는 누구의 所行인고²⁷

그는 오백 년 역사를 이어온 조선이 일제에 국권을 침탈당한 현재적 상황을 ‘참상’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그는 서울의 풍경 앞에서 ‘동정’, ‘한숨’, ‘흠발에 더러워진 석계’ 등의 시어로 비극미를 더한다. 조선의 긴 역사를 되새기면서도 경복궁과 남대문이 국권 상실로 퇴락하고 더럽혀진 것을 들춰 조선의 현실을 일깨운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가 경성을 떠나 개성에서 느낀 집단적 슬픔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비 내리는 만월대에 도착하여 ‘五百年의 찬란한 그 榮華가 지금은 몇 개의 돌각담과 몇+개의 柱礎만’이 남은 것을 보고 학생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는 평양에서도 ‘역사적 고적’을 볼 때, ‘파란’과 ‘살육’을 짐작한다. 심연수는 이 이후에 진행된 일정은 비교적 빠르게 서술하고 지나간다. 대련을 거쳐 도착한 여순에서는 ‘일본군이 노균을 이긴 곳’이라 쓰고 별다른 감상은 덧붙이지 않는다. 이런 서술 방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봉천에서 본 ‘청대’의 건축물, ‘국도(國都)’ 신경의 규모나 활기, 만주의 ‘조선언론기관’인 만선일보사의 실외 방문에 대해서는 놀라움과 아쉬움의 감정을 간단하게라도 피력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에 살았던 학생들도 심연수가 거친 여정처럼 조선의 명승지, 일본이 만주국에 건설한 정치 산업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여행기에는 자연과 유적지 앞에서 깨달은 민족의식, 조선의 신도시나 만주국에서 목도한 일본의 위력, 가난한 동포를 보고 느낀 비애가 주를 이룬다. 심연수의 육필 여행기와 시조에서도 민족의식과 같은 정체성 자각의 문제와 함께 고국의 자연에서 느낀 숭고미, 역사의 변화

27 「경회루」, 위의 책, 173면.

에 대한 자각이 두드러진다. 다만, 신경이나 하얼빈에서는 그 변화함 자체에 주목할 뿐, 그곳을 통해 일본을 환기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에 의해 근대화되어가던 도시 '경성'에 대해 함구했던 그의 태도와 연결된다.

조선에서 만주를 수학여행으로 다녀간 학생들의 기행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국정서', '이국풍물', '감시의 시선'에 대한 자각이다. 또한, 역사라는 담론을 교과서로 공부해 온 조선 학생들은 옛 조상의 땅에 발을 딛지만 '불안', '소외감'을 경험한다.²⁸ 이와 달리 간도를 일상 공간으로 둔 심연수는 봉천에서 청대의 역사를 느끼거나 신경 대로를 활보하는 러시아인의 모습에서 활기를 느끼지만, 그것을 '이국 문화'로 체감하지는 않는다. 조선에서 자연이나 유적지를 둘러보며 상실감, 비애, 분노를 느끼며 감정의 실재를 드러냈던 그는 남만주 여행에 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만 기록을 남긴다. 시조집 『무적보』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에서도 만주보다는 금강산, 경성, 개성, 평양에 관한 시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심연수는 여행의 마지막 날을 담은 「무제 기분이 나는」의 끝에 17일간 '본 것 들은 것이 별로 없고 견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취 없는 걸음을 만 리나 걸었다'고 한탄한다. 4년 동안 베풀던 수학여행이 어리둥절한 가운데 끝난 데 대한 실망감이 이 대목에서 그대로 느껴진다. 심연수는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의 지적 무능을 한탄하는 태도를 취한다. 대신 그는 수학여행의 노정은 끝났지만 '정신'의 수학여행은 '첫 길을 떠난 지 오래지 않다'고 쓴다. 준비 없이 떠난 수학여행 길에서, 그는 보는 자가 갖춘 견식만큼 대상의 의미가 보인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은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수학여행이 짧은 시간 내에 장거리를 완주하는 방향을 취했던 것과 관련된다. 수학여행에서 빠른 속도로 관광지를 돈 후 출발지에 돌아오면, 허망함이 밀려오기 마련이다. 심연수는 피상적 수학여행 문화를 피부로 느끼고 그것에 대한 비판과 자기 성찰을 여행기에 남긴다.

28 조운정, 2018, 『백 년 전 수학여행』, 세창, 124~127면.

그리고 그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송화강을 보자 ‘대만주의 동맥’이자 ‘대 산업교통’의 요지인 그곳에서 깊은 상념에 잠긴다. 송화강의 면면한 흐름 앞에서 그는 만주 삼천만의 감사를 떠올린다. 이것은 그가 「신경」이라는 시나 「용정 역두에서」라는 시에서 표현한 바와 통한다.

國都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었어라
街頭에 가고오는 五族의 우습소리
이아니 王道樂土 다른데 없으이다²⁹

알들이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마음 시원해라 맞아준 이곳空氣
映畫館 속에있다가 날아래 나온것갈더라³⁰

이 작품들에서 “마음이 가는곳은 낮익은 이곳뿐”³¹, “王道樂土가 다른 데 없으이다”와 같은 구절은 표면상 만주국의 통치이념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³² 그러나 이 표현은 긴 여행 끝에 생활의 공간에 돌아온 방랑자의 정서라는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러 편의 여행 시조들 가운데 유독 이 두 편의 작품에서 만주국에 대한 상념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용정 역두에서」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듯 그에게 조선과 만주는 각각 ‘영화관 속’과 ‘날아래 나온 것’에 비유된다. 이것은 현실감, 즉 생활의 감각과 직결된다. 같은 날에 쓴 시조 「수학여행을 마치고」를 보면, 심연수는 여행

29 심연수, 「신경」,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8, 『심연수 육필 시고집』, 강릉문화원, 195면.

30 「용정역두에서」, 위의 책, 191면.

31 위의 책, 같은 면.

32 일제 말기 만주 지역 시조를 연구한 우은진은 심연수의 「용정 역두에서」와 「신경」의 예외성을 환기하며, 그중 「신경」에 나타난 친일적 내용은 『만선일보』 신춘문에 현상모집에 응모하기 위한 욕망의 산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신경」은 시조집 『무적보』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수학여행의 전체적 여정 안에서 그 작품의 특성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우은진, 앞의 책, 335~336면.

이 “煙氣와 안개를 통해 보는 그림”³³같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자취나 남았으면 본 것과 같았을 것을, “풍파가 심한 이때 어이 그걸 바라리오”라고 탄식한다. 심연수에게 여행지 조선은 ‘영화관’이나 ‘그림’에 비유될 만큼, 감상하고 이해해야 하는 대상에 가깝다. 자취도 없이 사라진 옛 조선을 시각적 이미지로 상상하며 그리워해야 한다는 공허감은, 심연수에게 역으로 만주를 ‘낮의 고’ ‘마음이 편한’ 곳, 즉 고향으로 느끼게 한다.

조선과 만주에 대한 심연수의 심상은 그가 하얼빈에 사는 러시아인을 보며 느끼는 공감 문제로 나아간다. 「哈爾濱驛頭에서」라는 작품에 나타나듯 하얼빈역에 도착해서 심연수는 ‘서양 아닌 서양풍’을 느낀다. 하얼빈 거리에서 느껴지는 서양풍은 그곳에 정착한 러시아인의 삶을 반영한다. 그들은 이역(異域)에서 먹고사는 일에 곤궁함을 느끼지만, 하얼빈의 분위기를 바꿀 만큼 영향력을 지닌다. 러시아 운전수의 ‘유창한 만주말’³⁴을 들으며, 심연수는 그것이 ‘직업에 따라온 배움’이라 직감한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러시아 사람에게 하얼빈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드는 삶의 도구이자 강력한 무기임을 적시한다. 하얼빈에서 심연수가 공명하는 것은 ‘색다른’ 러시아 사람이 이역 땅에서 발휘하는 ‘생존력’이다.

육필 원고나 『무적보』에 수록된 시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그의 내면에 존재했던 고향이 실은 조선과 만주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이전에 글을 썼던 자리에서 이어 쓰기, 다시 쓰기, 장르 바꾸기를 하며 되새기고자 했던 것은 여행의 장소가 아니라 조선 땅을 실제로 밟았던 자신의 내면이었던 것이다. 출발지에 돌아온 그는 송화강을 보며 ‘삼천만의 감사’를 말하되,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려는가’ 하고 자문한다. 이것은 조선의 현실 앞에서 시공간적으로 느낀 거리감에 대응하여 만들어낸 고향의 심상지리다. 그러나 의문형에서 느낄 수 있듯, 여행 후에 만들어진 만주에 대한 고향의식에는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 있다. 수학여

33 심연수, 「수학여행을 맞이고」, 앞의 책, 192면.

34 「哈爾濱驛頭에서」, 위의 책, 185면.

행에서 돌아온 만주국 국민으로서 그의 정체성은 황민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이다. 그의 육필 기행문과 시조는 고향 상실의 대응물로서 자리한 만주국이 생활의 장소이지 신념의 원천은 아님을 드러내고 만다.

3. 『만선일보』의 검열과 개작된 기행문의 의미

경무국 도서관에서 펴낸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간행물 집행 명령 행정 처분 표(4월분)」³⁵를 보면, 1938년 4월 6일에 『만선일보』가 차압 명령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월보는 조선의 모든 간행물과 일본, 만주, 중국에서 발행되거나 배포된 정기 간행물 및 도서 가운데 압수 또는 삭제된 내용을 정리하고, 사상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발행되었다.³⁶ 『만선일보』가 이 극비 자료에 이름을 올리고 평안도 지역에 보냈던 신문 1700여 부를 차압당했다는 것은, 만주에서 간행된 이 신문의 내용과 유통에 일제 검열 당국의 감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주국 정부는 1936년 9월 만주홍보협회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신문 통제를 시작했다.³⁷ 만주 내 가맹 신문사에 투자하여 업무와 경영 권한까지 지녔던 만주홍보협회의 근본적인 실권은 일본 관동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만선일보사 역시 이 협회의 가맹 신문사였다.³⁸ 홍보협회는 1940년 12월에 해산되지만, 그동안 홍보협회를 감독했던 총무청 홍보처가 직접 신문과 출판물의 검열에 나선다.³⁹ 이에 따라 만주국 정부에 대한 만선일보사의 종속성은 더욱 강해진다.

시국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국책에 대한 협조가 절실해지고 이에 따라

35 警務局 圖書課, 「刊行物執行命令行政處分表」, 『朝鮮出版警察月報』116호, 1938. 5.

36 정진석, 2009,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190면.

37 「滿洲 言論界 統制 弘報協會를 設立 各社를 網羅統制」, 『每日申報』, 1936. 6. 3.

38 滿洲弘報協會 編, 1940, 『滿洲의 新聞과 通信』, 滿洲弘報協會, 4~7면(전경선, 2013, 「만주국의 신문통제와 滿洲弘報協會(1936~1940)」, 『대구사학』113, 대구사학회, 21면에서 재인용).

39 전경선, 2013, 위의 책, 19면.

선전의 사명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을 무렵, 1939년 3월 홍보처의 신입 처장으로 무토 도미오(武藤富男)가 임명되었다. 그는 1943년 5월까지 홍보처장으로 재임했다. 무토 홍보처장 시기 선전 공작에서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른바 ‘藝文’, 즉 문학과 예술을 선전의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⁴⁰

홍보처가 문화 행정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를 국책 선전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하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동시에 문화 그 자체를 국민의 중심에 위치시켜 아름다운 것,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을 국민 안에 스며들어 가게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전의 두 가지 의미는, 한편에서는 국책을 알기 쉽게 함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게 해서, 이 긴박한 정세에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만주의 선전정책은 이 점에서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제경제의 긴박한 시대에 있어서는 항상 국민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⁴¹

전시 체제 속에서 만주국 국민들이 겪게 되는 압박과 불안이 가중되자 무토는 선전의 역할을 국책 보급과 주입에서 나아가 민중들의 심신 위로로 확장한다. 강조점을 두어 부각한 것처럼 그는 문화로써 국민의 마음을 풀고자 한다. 『만선일보』에 실린 심연수의 수학여행기는 이와 같은 신문 통제와 선전 정책하에서 살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그의 여행기 「權域을 차저서」가 『만선일보』에 실린 때는 무토가 ‘신문신체제(新聞新體制)’ 확립을 도모하는 시기와 겹친다. 당시의 상황은 신문에 연재된 그의 수학여행기를 바로 체제 순응의 산물로 해석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40 전경선, 2013, 「太平洋戰爭期 滿洲國의 宣傳政策」, 『중국사연구』82, 중국사학회, 394면.

41 武藤富男, 「新聞新體制의 確立について」, 『宣撫月報』50, 國務院總務廳弘報處, 1941. 2, 14면.

심연수는 앞장에서 살핀 육필 원고를 기본으로 삼아 「근역을 차저서」를 연재하기 때문이다.

만주국의 언론 검열과 선전정책의 방향은 그의 육필 원고와 신문 게재본의 차이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심연수는 만주에서 조선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던 만선일보사에 자신의 수학여행기를 보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육필 원고의 내용을 개작한다.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라는 제목이 조선을 연상시키는 ‘근역을 차저서’로 변모하게 된 것처럼 그의 글은 육필 원고 중 조선에서의 여행에 좀 더 집중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본(異本)은 심연수의 문학이 시대의 생산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서 있는가 하고 질문하기에 앞서 그것이 생산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⁴² 신문은 작가에게 문학적 위치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작가가 사회적 구속이나 정치적 과제를 인식하고 생산 수단과 문학적 기술의 관계에 대해 사고할 것을 요청한다.

심연수의 「근역을 차저서」는 수학여행이 끝난 시점인 1940년 5월에서 9개월 정도가 지난 때에 발표된다. 이 때문인지 육필 원고에 있는 수학여행의 날짜와 열차 시각, 출발 당시의 구성원 수 등은 신문 연재본에서 삭제된다. 이는 당시 심연수를 비롯한 재만 조선 학생의 수학여행 일정을 고증하기 위해서는 그의 육필 원고가 참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만선일보』에 연재된 기행문의 저자명에 주목을 요한다. 심연수는 1940년 12월 6일에 용정국민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가 졸업한 이후 ‘龍高 沈連洙’로 그의 작품이 실렸다는 것은, 심연수가 졸업 전에 만선일보에 원고를 보냈음을 알려준다.

신문 연재본 「근역을 차저서」 2화 1단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심연수의 육필 원고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를 저본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42 작품이 한 시대의 사회적 생산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질문하는 대신 문학적 ‘기술(Technik)’을 격양하여 생산자로서 작가의 자율성에 주목한 관점은 발터 벤야민의 논의를 참고했다.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2006,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55~256면.

있다. 그리고 2화의 2단은 육필 원고 두 번째 「무제 바위 면에는」을 바탕으로 개작된다. 2화의 3단과 4단에 서술된 구룡폭포 관련 내용, 3화의 면경대와 마의태자릉이나 묘길상 관련 부분은 다시 첫 번째 육필 원고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를 거의 옮겨 놓은 양상을 띤다. 그리고 3화에서 망군대부터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의 내용은 「무제 기분이 나는」을 저본으로 삼아 부분적으로 개작이 이루어진다.

심연수는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의 내용을 차용하되, 일부분을 '삭제'한다. 삭제된 내용은 출발 시각이나 구성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여정 중간 중간 기차를 타고 내리거나 기차에서 본 바다 풍경, 금강산 숙소에서 전등 대신 초를 쓴 일화 등이다.

일흠난 것이라고 다 보면 무엇하나 눈물에 젖은 높은 일흠은 나는 눈을 바로
뜨고는 못 보겠더라 아침에 後隊가 와서 재촉하기에

갈메기는 도라오는 배 우을 기웃거리며 돌아친다 물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물
결은 바닷가 모래를 흠쳐 싹고 싹고 한다

特히電燈을 그만 두고 초를 쓰게 되였다 發電에 일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것도
다른 때는 얻을 수 없는 좋은 인상이었다

여행에서 중요한 사건을 담지는 않았지만, 당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으로서 보고 느낀 그날그날의 소소한 감상을 담은 문장들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인용문은 두만강을 건너며 느낀 바이다. 국경을 넘으며 어둡 너머로 보이는 두만강을 차마 볼 수 없다는 화자의 감상은 생략되고 바로 뒤에 이어오는 '국경의 굵은 꿈자리'만 남는다. 이 문장은 '눈물에 젖은 높은 일흠'처럼 고향을 떠난 식민지인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부분이기엔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래 두 인용문은 자신의 수학여행 일정을 한정된 지면에 정리하는 중에 작가가 중요한 장소 위주로 자신의 감상을 일축했

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두 번째 문장은 나중에 「원산 부두에서」라는 시에 다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상호텍스트성은 그에게 원산 부두에서 느낀 설움과 애통함의 정서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드러낸다.

그밖에 육필 원고 가운데 개작한 부분이나 신문 연재본을 만들면서 첨가된 부분을 비교해 보자.

| 육필 원고 | 신문 연재본 |
|---|---|
| <p>우리는 다른 車를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役夫 말이 돈 아니 받고 막 바꾼다는 바람에 행리 공데미를 걸 매고 나서서 새 車를 기다렸음니다 한참 만에 먹을 것 못 먹고 분해하는 농처럼 달려드는 機關車 뒤에는 京城行列客車가 달렸다 車에 올라 東쪽 앉을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떠났다 翰城은 좀 가더니 東쪽에 푸른 바다가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며 바다 냄새가 車窓 틈새로 숨어들다 沿線에는 松林이 푸른 잎 붉은 몸은 그림 이상이 風景이었으며 自然을 그리든 우리눈을 어지간이 아롱지게 하여주더라</p> | <p>翰城에서 京城行 車를 달아탔다 날이 밝으면 여기서 바다가 보인다 하나 오날 날체는 보여주지 않는다 한참 가니까 東쪽으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 車는 바다를 떠나 松林 사이를 달리었다</p> |
| <p>바다일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고기잡이배 고기 잡는 그대들 얼마나 반가우라? 기쁘라? 집에는 아들 딸 안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일 집 없고 아들 딸 없는 고기잡이군이 저 배에 탔다면 오날의 하로밤도 물 속에서 새일 것이고 내일도 모래도 그는 바다의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p> | <p>農村에 저녁연기는 솔바데 숨어들어 夕陽을 받는 흰 돛에는 潮風이 갖득 담기여었다 바다에 하로 일에 지친 몸을 실고 陸地로 도라오는 바다의 일군이 오날 잡은 것은 무엇이나? 그대들은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하려나 넓지 안흔 따 우에 집이 있고 아들 딸 안해가 있다면 그는 必然 기쁘하고 조아할 것이다 그러나 아모것도 업는 고기잡이군이 있다면 오날의 하로밤도 물 위에서 새일 것이고 내일도 모래도 그는 영영 바다의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p> |

육필 원고에 기록되었던 기차에 대한 묘사, 역부와의 만남, 기차를 타고 본 바다 풍경이 거의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연수는 어둠 속에서 보았던 바다 풍경과 그 냄새에 대한 기억을 「동해」라는 시조에 표현하고, 그 아쉬움을 기록해 둔다. 육필 원고와 신문 연재본 모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의 모습이다. 그리고 어부를 그럴 때에는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을 좀 더 정적으로 묘사하고, 어부의 고단한 노동과 가족과의 관계에 방점을 두어 서술한다. 기차 안에서 망망대해를 보며 글쓰기가 느꼈던 격앙된

감정을 조절하고,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노동의 보람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원산 부두를 구경하며 쓴 부분이다.

| 육필 원고 | 신문 연재본 |
|--|--------------------------------------|
| 우리는 무엇을 보러 왔고 그러나 보내는 것 없는 부두는 더욱 쓸쓸하였노라 | 그러나 지금 온 떠나는 배도 업고 離別을 아깝아 하는 사람도 없다 |

육필 원고에는 심연수 자신을 포함한 학생이 느꼈던 이별의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면, 신문 연재본에는 이별의 슬픔이나 아쉬움은 아예 삭제된다. 명랑, 건강, 건실이 강조되었던 일제 말기 전시 체제하에서 그는 고향을 떠나는 실향민의 마음을 신문 연재본에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육필 원고 | 신문 연재본 |
|--|--|
| 아침에 뒷내에 나가 얼굴을 씻고 숨을 길게 드레쉬었다 아-얼마나 시원한가나도 이런 곳에 살 만한가 아침 먹고 나서 一行은 毗盧峯으로 올리기 시작하였다 적은 고개 넘으니 그곳에는 큰 寺刹이 있고 人家도 여러 戶 살고 있다 神溪寺라한다 溪谷을 따라서 돌층대를 올라서면 작고 긴다 昭潭도 보고 金剛門도 지냈었다 하늘빛도 유심히 청々하고 山마저 神奇한 이골에 나는 神仙이 되는 길을 올르는가보다 | 자리에 누어서 온 길을 마음의 손으로 더듬어 보다가 잠이 들었다 자-오늘은 毗盧峯 길이다 腳絆을 풀어서 짐방빙을 만들어 걸머지고 집신을 사서 물에 적서 신고 들매줄 단단히 하고 나서니 발이 거뿔거뿔한 게 하로 한 천리길 가튼 것은 쉽사리 갈 것 같다 階段을 올르는 데는 가족신는 예마치어라 하는 듯이 그것을 신고는 잇그럽고 발이 붓지 아니한다고 한다 아마 金剛山行에 처음 집신을 신어보는 젊은 男女가 만흔 듯싶다 쪼그만한 고개를 넘어서 이르니 神溪寺다 인가가 많이 있고 小學校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곳에서 자란 어린이는 얼마나 靜的이며 自然을 잘 알까 溪谷을 따라 적은 물을 건너뛰기도 하고 돌층대를 올기도 하며 작고 높흔 곳으로 올라만 갔다 鉛潭도 보고 金剛門도 지냈다 얼굴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나려서 바위에 업이저간다 눈으로 들어오려는 땀을 눈썹이 막는 줄을 이곳에 와서 의심 업시 알게 되었다 |

위 인용문에는 금강산에 도착한 다음 날 비로봉 오르는 길에 보았던 것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육필 원고에는 없던 '짚신 신고 산 오르기'의 과정이 신문 연재본에 추가된다는 점이다. 심연수는 이 장면에

서 학생들의 의기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신선 되기’의 감상은 ‘산행에서의 각성’으로 변모한다. 그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경험했던 산행의 어려움을 재현하되, 금강산에서 육체적으로 감각했던 것들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여행기를 개작한다. 그의 글을 통해 독자는 비로봉 오르는 길을 상상하며, 거친 산세를 타고 오르는 학생들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일제 말기 수학여행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학생들의 신체적 단련이었다. 만선일보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은 심연수가 경험했던 사실을 바탕에 두면서 신문사가 추구했던 황민 계몽의 의도와도 부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개작된 내용이 일제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 그의 묘사는 금강산의 산세와 학생들의 산행을 보고하는 선에서 그친다. 그는 금강산의 자연을 국가적 비유 체계 안에 끌고 들어오거나, 신체적 단련을 국민의 건강성과 연결하는 주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육필 원고 | 신문 연재본 |
|--|--|
| 九龍淵이다 아-그는 일흔 높은 九龍淵이다 그러나 그것은 물이 떨어지는 瀑布가 아니요 구슬이 떨어지는 瀑布였다 나는 물 떠러지는 곧까지 가서 우를 올려다 보았다 물거품이 뛰어서 옷은 잠시간에 함박 젖는다 그곤을 물러나와 멀리서 보고 앉어 있다 | 좀 더 올라가니 우루릉하는 소리 물 쏘여지는 소리가 나며 시원한 물바람이 땀 난 얼굴에 뛴지 아는 부채집을 해준다 아- 九龍瀑! 瀑布가 아니다 물이 아니다 물 아닌 瀑布요 瀑布 아닌 비단쪽이 絶壁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나는 물 떨어지는 맛까지 달아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물 떨어지는 곳만 드러다 보고 있섰다. 어느 곁에 옷은 함박 젖었지만 옷 젖은 줄 몰고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고 서 있섰다 |

위 인용문은 구룡연을 본 심연수의 심정을 담고 있다. 두 글의 차이에서 구룡연을 본 글쓴이의 감상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모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실경을 좀 더 동적으로 묘사하고 자신의 감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작했다. 물을 ‘구슬’에 비유하는 방법은 후에 옥류동에서 반복되기에 일부러 구룡연 묘사에 ‘비단’을 차용하기도 한다. 심연수가 개작 과정에서 ‘미학적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체의 실감과 대상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다양한 어휘를 동원하여 비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심연수의 수학여행기에서 서사적 지연이 가장 오래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옥류동’이다. 작가는 「일만 리 여정을 답파하고서」에서 쓴 ‘옥류동’ 부분을 「무제 바위 면」에서 길게 묘사한 내용으로 대체한 후 일부분을 수정한다.

| 옥필 원고 | 신문 연재본 |
|---|---|
| <p>그 맑은 물에 낮고 발을 씻고 손으로 웅켜여 기근 먹고서는 바위 운에 발을 벗고 앉어 구슬이 흐름만 보고 있었다 나는 앉은 자리를 無心코 손으로 더듬게 되었음니다 그리고 그저 바위와는 다르기에 살펴보니 數千名の 探勝客의 일흔을 盤石 우에 색인 것이 었다 그들은 이 곧에다 일흔을 남겨서 後人에게 알리려는 卑賤한 意味에서 한 것이 아니라 仙境을 그저 무엇 남김없이 돌아가면은 物件은 받고 代價를 아니 치르는 격이 된다서 일부러 증과 망치를 들고 糧食을 지고 觀光客이 빈번한 곧에다가 증으로 일흔을 색이는데 後 사람이 자조 밟는 곧 보는 곧을 擇한 것이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색인 것이 사람의 발에 달어서 글자가 變하여서 없어지는 것을 좋아한 것이라고 보여지더라</p> | <p>나는 너레 盤石에 안저 그 물에 얼굴을 씻고 마시고 삽은 대로 마셨다 마진면 바위에 글자가 보이기 에 얽페 바위를 보았다 역시 거기도 글자가 빈틈 업스리만치 색여져 있다 일흔이다 사람의 일흔이다 저 이들은 이 조흔 구경을 하고 그저 돌아갈 수 업서 정과 망치를 가지고 妙하고 조코 단단하고 뒷사람이 잘 볼 수 잇는 바위에다가 커다라케 자기 일흔字를 색이게 된 것이리라 그가지 한字 색이느라고 얼마나 困苦를 하였을까? 망치질을 몇千번이나 하였던고 惑 서투른 망치질을 하노라고 손이나 아니 때릿나? 자기 쓴 글자를 색이고 돌가루를 털고 일어나 흘르는 맑은 물에 손을 씻고 낮을 씻고 붓따리를 걸메고 그 자리를 떠나며 돌아보고 돌아보고 하였슬 것은 더 말할 일조차 안된다</p> |

이처럼 심연수는 옥류동에 관한 자신의 감상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원고로 보완하고, 신문에 연재할 때에 다시 수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옥류동 주변의 반석에 사람들이 새겨 놓은 이름을 보며 그는 과거 조상들의 행동과 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묘사한다. 개작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대상이 일으킨 감각을 부각하는 방향에서 심상을 표현하고, 설명을 덜어낸다는 점이다. 그는 글을 읽는 조선인 독자가 옥류동을 상상하되, 선조들이 이름을 새겨둔 반석을 연상하며 옥류동의 진풍경이 지닌 역사성까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앞서 살핀 홍보처의 선전정책이 지향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심연수가 그려낸 공간은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인간의 기억을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 장소는 누군가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를 내포하며, 그 장소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기억들이 경쟁하기

도 한다. 일제 말기 국책 선전하에서 규격화된 수학여행의 여로를 따라가던 심연수는, 금강산의 아름다움 자체에 집중했던 선조들의 미의식과 그 미적 태도가 다시 풍경을 만들어낸 옥류동의 장소성에 주목한다. 이것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발견된 여행지의 기능성과는 대별된다.

| 육필 원고 | 신문 연재본 |
|---|--|
| <p>이튿날 서울서 여러 곧을 見學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곧에서 본 이야기를 내 혼자만 알고 있으려 한다 오늘은 五月十二日이다 비가 온다 비를 맞으며 驛으로 나가지만 초갑지는 않았다 비나리는 漢陽을 떠났다 開城엔 내려서도 비는 나렸다 滿月臺를 찾았다 비는 그냥 나린다 五百年의 찬란한 그 榮華가 지금은 몇 개의 돌각담과 몇 +개의 柱礎만이 남을 뿐 비마져 알고 나리니 찾아온 우리들 눈에는 빗물 눈물이 晞流하더라</p> | <p>서울 見學을 하였지만 꿈속에서 본 것 같해 어디라고 누구게 알릴 수 업서 내 혼자만 알고잇스려다 五月十二日 아침 비를 마즈며 驛에 나와서 開城으로 왔다 滿月臺를 차젓스나 남은 것은 돌층계와 몇+개의 柱礎뿐이였고 비가 마져 알고 나리니 마음마져 쓸쓸히 젓저지더라</p> |
| <p>이튿날 旅順으로 갔다 日本軍이 露軍을 이긴 곧이다</p> | <p>旅順으로 일로전쟁때 쏜린 彈丸 자리에는 몬지가 안저 메이려고 한다</p> |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심연수는 신문 연재본에서도 서울에서 본 것들에 대해 함구한다. 대신 ‘꿈속에서 본 것 같해 어디라고 누구게 알릴 수 없어’와 같은 수식어구를 첨가한다. 그리고 개성에서 학생들이 흘린 눈물을 묘사한 장면은 ‘개인이 느낀 쓸쓸함’으로 대체한다. 또한, 여순에서 본 일본의 승전지에 대해 들을 바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일로전쟁의 과거성을 부각하는 비유적 표현을 쓴다. 서울과 개성, 여순에서 목도하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작가는 말하기를 꺼리거나, 개인적 감상으로 일축하고, 에둘러 말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그가 작품을 연재하는 미디어를 의식하면서도 작가가 느낀 감상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여행의 기록을 재구성했음을 의미한다.

| 육필 원고 | 신문 연재본 |
|---|---|
| <p>牡丹江을 거쳐 龍井이 잘 있었느냐 우리 없는 동안 別일 없었느냐 지난 열일 동안 본 것 들은 것은 별 로 없었고 見識이 薄弱한 우리에게는 자취 없는 걸 음을 萬里나 걸었다 그러나 (韋遜) 修學旅行을 마 친 것인가고 內問하여 (韋遜) 修學旅行露모은 끝났 지만 精神의 修學 (韋遜) 질을 떠난 지 오래지 않다 아—四年 동안을 두고 버려진 길을 그저 어리둥절 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은 不幸에 加入할만한 事實 이다.日後도 이러한 길이 있다면 좀 더 알고 지낼 것 같다 이것이 벌써 이 길에서 얻은 것이라면 나오서 물으는 가운데 반가운 일이다.</p> | <p>牡丹江을 거쳐 龍井에 도라오기는 五月 二十二日 午前 九時였다 눈썹은 驛 出口에는 낮고 때무든 옛 學友가 마저준다 握手를 하고 龍井의 慰安을 하 게되었다 어제 도라온 몸이 언제 어느 때까지 이곳 에 머물고 있습니까? 너무나 變動이 자존 世態니 내 일 이지만 남의 일과 다름없다 汽笛 소리가 들린다 우 리를 시러다 준 車는 벌써 떠났다 내 귀에 들니기는 떠날 제 汽笛과 이번의 汽笛박게는 못 들었다 크나 저그나 내 있는 곳이니 조흔가 하노라</p> |

신문 연재본 3화에서 가장 많은 개작이 이루어진 곳은 글의 마무리 부분이다. 여행이 얼떨떨한 채 빠르게 지나갔다는 맥락의 표현은 유지된다. 그러나 육필 원고에서 강조되었던 여행에 대한 실망감이나 앞으로의 다짐이 신문 연재본에서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용정에서의 삶이 ‘변동이 잦은 세태’ 속에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자문으로 대체된다. 여기에서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만주국의 이상은 사라진다. 여러 도시를 거쳐 세상의 변화를 실감한 용정의 학생은 출발지에 돌아와서 비로소 자신이 용정을 떠나게 될 것을 토로하고 만다.⁴³

앞서 용정국민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알리던 『만선일보』에서 강조했던 ‘만주국 교육의 신동향’이라는 문구를 되새겨 보자. 그가 여행기에 피력한 실망감과 피로도는 일제 말기 수학여행의 이상을 균열한다. 물론 그는 금강산의 송고미, 고려와 청대의 고적이 지닌 역사성, 만주국의 발전상을 목도하지만, 그것이 만주국의 이념으로 내면화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고적만 남은 개성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오백 년 도읍지 한양의 변화상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침묵한다. 그리고 신문 연재본에서는 용정을 떠날 날을 짐작하는

43 그는 1940년 12월 일본 유학 관련 서류 준비를 위해 강릉을 방문하고, 용정국민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유학을 떠난다. 심연수가 졸업 전 만선일보사에 보낸 이 기행문은, 용정을 떠나 일본 유학길에 오르는 그의 행보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임을 암시한다.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수학여행을 통해 자신이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⁴⁴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특히 그가 조선의 자연과 유적지에서 느낀 숭고미에 주목을 요한다. 칸트는 ‘숭고’를 위력을 지닌 현상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다는 감정과 그러한 위력마저도 극복하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느끼고 고양됨을 느끼는 감정적 전환이라 설명하였다.⁴⁵ 이처럼 인간이 숭고를 느낄 수 있으려면, 공포를 지각하면서도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자연이든 역사가든 그가 여행 중 무력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맞닥뜨려 ‘고양된 힘’을 느끼고, 그것을 함께 여행한 학우들과 공유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 감정적 고양이야말로 그가 느낀 공동체 정신의 동력이자 그것을 서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주국의 근간에 해당하는 오족협화의 정신은 만주에 사는 조선인에게 ‘신념’의 문제였다. 심연수는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수학여행은 그 정신을 답사하는 실질적 활동이었다. 그러나 심연수는 습작 노트와 신문이라는 이분화된 글쓰기 공간에서 수학여행기를 창작하되, 『만선일보』를 ‘문인 되기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가 지속적으로 글을 쓰면서 초고와 신문 발표본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개작은 문학적 완성을 기하는 과정이면서 그에게는 문인 되기를 위한 전략이었다. 사상 통제의 상황에서 육필 원고의 ‘정보성’을 유지하되 언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자화’를 감행하는 일은 직업적 행위이되, 정치성의 영역에 속한다. 그의 태도는 만선일보의 근간이었던 황도국가 사상을 세속적으로 역이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44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역, 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5면.

45 임마누엘 칸트, 김상현 역, 2009, 『판단력 비판』, 책세상, 166-167쪽.

4. 결론

지금까지 심연수의 수학여행기를 통해 1940년 용정국민고등학교의 수학 여행 여정을 정리하고, 그의 육필 원고와 신문 연재본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에게 그의 육필 원고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미디어에 노출된 작품만으로 그의 문학세계나 사상이 해석되거나 왜곡되었을 것이다. 친일이나 반일과 같은 구도의 논리는 특정 작가를 이분법적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결과를 낳는다. 그 과정에서 특정 논리에 부합하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그 논리로부터 비껴난 작품을 누락하는 과오가 생긴다.

이 논문은 수학여행을 둘러싼 심연수의 작품을 망라하여 그가 보고 느낀 것을 분석하고, 육필 원고와 신문 발표본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그의 여행기와 시조는 당시 만주에서 학교에 다녔던 조선인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정과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바를 고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재만 조선인이 작품을 신문에 투고하면서 미학적 완성을 기하고, 자신의 기억과 감성을 집약하는 개작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특히, 그가 일제 말기의 상황에서 수학여행을 기록하기 위해 기행문과 시조라는 장르 사이를 오갔던 점은 그의 작품들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필 여지를 제공했다. 그와 같은 연구의 가능성 안에서 필자는 재만 조선인 심연수의 교육 환경과 문학 활동 사이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만주국의 정치적 슬로건 이면에 존재했던 파열음을 드러냈다.

당시 학생이었던 심연수가 일제의 교육적 계획하에 금강산, 고도(古都), 만주의 신도시들을 돌고 기록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강요된 교육 정신이 내면화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알 수 있다. 그의 여행기는 일제 말기 언론의 선전 정책과 검열 통제가 심화된 때에 신문에 발표된다. 당시 문예는 전시 체제 하 만주인을 위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육필 원고와 신문 연재본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 그는 개작을 감행하지만 당시 작가에게 요청되었던 만주국의 이상을 작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개작 과정에서 일어난 차이는 육필 원고에 각인된 향수, 심적 충격, 비애 등의 감상성

그리고 신문 연재본에서 비중이 커진 실감의 묘사나 비유적 표현 방식 등을 확인케 한다. 심연수는 여행 과정에서 모국인 조선과 생활의 터전인 용정을 물리적으로 오고 가며 이민자로서 고향의 심상지리를 만들되, 독자에게 자신이 곧 용정을 떠날 것을 직감한 사실도 드러낸다.

그는 몇 개월에 걸쳐 이어 쓰기, 겹쳐 쓰기, 장르 바꾸기, 개작하기 등 다양한 글쓰기 전략을 구사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사적인 기록은 신문 연재라는 공적 글쓰기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그가 일제 기관지인 『만선일보』에 기행문을 연재하였던 것은, 작가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지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적-공적 글쓰기의 상호텍스트성 안에서 재만 조선인으로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문학적 기술로서 『만선일보』의 황도국가 사상을 역이용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수학여행으로 국경을 넘나들면서도 ‘작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은 채 대상을 응시하고, 글을 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문인’ 심연수의 작품을 특정 정치색에 가두어 과잉 해석하기보다 그 자체로 읽고 분석하는 일일 터이다. 심연수의 수학여행 관련 사료는 재만 조선인의 문학, 더 나아가 문화 연구가 작가 본연의 글쓰기(목소리)에 주목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教育時論』, 『滿鮮日報』, 『每日申報』, 『宣撫月報』, 『朝鮮出版警察月報』
 松本武正·加藤松林, 1926, 『金剛山探勝案内』, 龜屋商店
 심연수, 2004,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 사료 전집 1: 심연수 문학편』, 중국조선민족
 문화예술출판사
 심연수,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8, 『심연수 육필 시고집』, 강릉문화원
 심연수,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8, 『심연수 육필 일기집』, 강릉문화원
 심연수, 심연수 기념사업회 편, 2019, 『심연수 육필 산문집』, 강릉문화원
 조선총독부 편, 1924,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조선서적주식회사

2. 국내외 논저

김해웅, 2006, 『심연수 시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박복금, 2010, 『심연수 시조의 고향의식 연구』, 『한중인문학연구』29, 한중인문학회
 서기재, 2011,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우은진, 2015, 『일제 말기 만주 지역 시조 연구』, 『한국문학논총』71, 한국문화회
 윤희탁, 2016, 『만주국의 교육 이념과 조선인 교육』, 『중국사연구』104, 중국사학회
 이성천, 2011, 『재만 시인 심연수 시 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70, 어
 문연구학회
 임성모, 2006,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근대 일본의 만주여행과 제국의식』, 『일
 본역사연구』 23, 일본사학회
 전경선, 2013, 『만주국의 신문통제와 滿洲弘報協會(1936~1940)』, 『대구사학』113, 대
 구사학회
 전경선, 2013, 『太平洋戰爭期 滿洲國의 宣傳政策』, 『중국사연구』82, 중국사학회
 정진석, 2009,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조운정, 2018, 『백 년 전 수학여행』, 세창
 황규수, 2007, 『심연수 시조 창작과 그 특질』, 『한국문예비평연구』24, 한국현대문예비
 평학회

-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반성완 편역, 2006,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심연수의 일본관」, 엄창섭 편, 2009, 『심연수의 시문학 탐
색』, 제이앤씨
- 오코우치 쇼(大河内昌), 2003, 『岩波講座 文學7: つくられた自然』, 岩波書店
- 이소마에 준이치(磯前順一), 심희찬 역, 2014, 『상실과 노스텔지어』, 문학과 지성사
-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김상현 역, 2009, 『판단력 비판』, 책세상
-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주혜연
역, 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투고일: 2020년 9월 18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9일

■ Abstract ■

Intertextuality in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1940) : An Analysis of Sim Yeonsu's Travel and School Excursion Essays

Jo, Yunjeong (KAIST)

This study deals with literary works of Simyeonsu, including his travel essays, the Sijo (時調) diary from his school trip (May 5-22, 1940). He published a series of travel essays in *Manseonilbo* based on three travel essays and *Mujeokbo* (無跡步), a compilation of sixty-seven handwritten poems. These works provide information on school trips and emotional attachment to place through travel. Through his works, readers can understand the migration and the emotional impact of Simyeonsu's first steps on Joseon land. This paper analyzed the intertextuality among Simyeonsu's works. It focuses on the gap between Manchuria's educational ideal and students' internalization of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through essay writing. Using a cross-comparison of Simyeonsu's handwritten manuscript and newspaper serial text, this study showed how censorship during Japanese imperialism affected his writing. Simyeonsu's journeys elicited his emotions that fueled his writing, rewriting, and genre changes, but also led to moments of writing inactivity. He thus diversified his space for writing with contributions to *Manseonilbo*. During late Japanese imperialism, officials propagandized the spirit of five races under one union(五族協和) and the realm of peace and prosperity(王道樂土) to the Joseon people living in Manchuria. Simyeonsu's writing revealed the difficulties of internalizing these ideas. His writings related to, and while on, school excursions also elucidate practical limits to Japan's educational plans, which expose Joseon students' inabilities to accept these ideas while living in Manchuria.

Keywords: Simyeonsu, School Trip, Travel Essay, Sijo, Intertextuality,
Manseonilbo, Censorship